

# 추석 밥상 '화두' 선점하라... 여야, 대정부 질문 격돌

### 오늘부터 4일간...국힘, 노동·연금 등 4대 개혁 당위성 홍보 민주, 의료 대란 대책 촉구...경제·외교·안보 무능 공세 예고

9일부터 4일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여야 격돌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오는 12일 야당이 지역화폐법 강행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극한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해남안도진도) 의원이 정치분야를, 같은 당 김원익(목포) 의원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의 당위성과 성과를 앞세우면서, 거대 야당의 '괴담 정치'와 '입법 폭주'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음 달을 전후해 주요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다시 부각할 방침이다.

여당은 이를 위해 대정부 질문 진용 구성에도 공을 들였다.

첫 타자로는 연료 있는 중진 의원을 배치해 '기선 제압'을 하고, 주제에 맞는 전문가 출신 의원들이 공세의 바통을 이어받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8일 "선수, 전문성 등을 두루 고려해 의원단을 짰다"며 "야당이 왜곡하는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정부의 국정 성과를 제대로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파상 공세에 나설 태세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커지는 응급 의료 혼란상을 부각하면서 책임자 경질 및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국적'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및 계엄 준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집중 포화도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고리로 '정치 보복' 여론전도 전개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실정은 물론이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엔 면죄부를 주고 전 정권에 대해선 정치보복 수사를 자행하는 행태도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의 분회의 처리 여부를 놓고도 치열한 수싸움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마지막 분회의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휴를 앞두고 '민생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한 지

역화페법을 통과시켜 추석 mind를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내친 김에 김 여사 특검법도 9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거쳐 12일 본회의의 상정까지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명절 직전까지 야당의 '입법 독주'가 이어지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고, 오는 26일 여야가 합의한 분회의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도 민주당 내부에서 감지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까지 처리를 추진하게 되면 추석 연휴에 며칠간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2일 본회의는 대정부질문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일정으로, 법안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이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에 나서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일각에선 거대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유일한 합법적 수단인 필리버스터 카드로 거론된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사실상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아직까지 민주당 원내 지도부로부터 본회의의 법안 처리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전달받은 바 없다"며 "사정 변경이 생긴다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12일 본회의의 안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일정 결정 권한이 있는 우 의장은 '친정'인 민주당의 법안 상정 요청과 관련, 명절을 앞두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모습이 국민적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까지 두루 고려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힘 원내대책회의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검찰수심위, 김 여사 막장 면죄부 쇼"

### 불기소 권고 반발... "특검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막장 면죄부 쇼"라고 반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지난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황제 출장 조사에 이어 면죄부 처분을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며 "국민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답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고 민주당이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사법 시스템 사유화를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국민 상식은 권력에 빌붙은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배신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김 여사에게 상납한 면죄부가 영원할 거라 착각하지 말라"면서 "성탄 금지법과 뇌물수수 등 이번 수사위원 논의 대상 혐의와 더불어 공천 개입 의혹까지 모두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여의도 브리핑

## "北 오물풍선 피해 1억원...제지 대책 세워야"

### 양부남 "정부 방관에 국민 피해"

북한이 지난 5월 말부터 날려 보낸 대남 오물 풍선 탓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가 1억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오물 풍선이 살포되기 시작한 5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수도권에서 생긴 피해 규모는 1억522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7987만원과 경기도 2065만원을 합한 액수다. 인천시는 관련 피해가 없었다.

신교 건수는 서울이 13건, 경기도 38건 등 총 51건이다. 이 가운데 견적을 내고 있어서 피해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3건이었다. 피해 액수가 가장 큰 신고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당시 물류센터에 세워둔 차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차 지붕이 파손돼 1571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6월 1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는 지붕이 오물 풍선으로 파손돼 1485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달 2일 경기 부천시에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게 조작한 기폭 장치가 달린 풍선이 떨어지기도 했다.

양부남 의원은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가 이어지는 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제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조국, 영광·곡성서 '월세살이 선거운동'

### 조국혁신당, 10·16 재선거 대비...민주당과 경쟁 본격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16 영광·곡성 재선거에 집중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두 지역에서 '월세살이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이었던 전남지역에 조국혁신당이 총력전으로 나서면서 양당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8일 조국혁신당 등에 따르면 조국 대표는 오는 11일께 영광·곡성 예비후보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확정되면 영광과 곡성 양쪽에 월세방을 구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혁신당이 민주당과의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경쟁에서 승리한다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텃밭인 광주와 전남에서 탄탄한 지지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구 의원 없이 모두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 혁신당의 약점인 지역 지지세가 다져진다면 2년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운동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달 29일 영광을 찾아 "호남에서 민주당 일당 독점 구도를 깨트리기 위해 새로

운 선택지가 필요하다"며 "혁신당의 재보선 출마가 호남 유권자에게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고, 호남 전체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혁신당의 호남 경쟁력은 이미 지난 22대 총선에서 검증돼 민주당과의 경쟁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혁신당은 지난 총선 호남 비례대표 득표율 1위를 기록했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영광 39.46%, 곡성 39.88%의 지지를 받았다. 영광 40.14% 곡성 41.13%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연합(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을 바짝 추격하면서 일당 독점 폐해를 깨뜨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혁신당은 지난 6일 서양진 의원을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지역 정치 세력 다지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를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